

뉴욕시, 영구적으로 센트럴파크 차량 진입 전면 금지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2018-18/transcript-mayor-de-blasio-central-park-world-s-most-iconic-greenspace-will-become>

<http://www1.nyc.gov/site/visionzero/index.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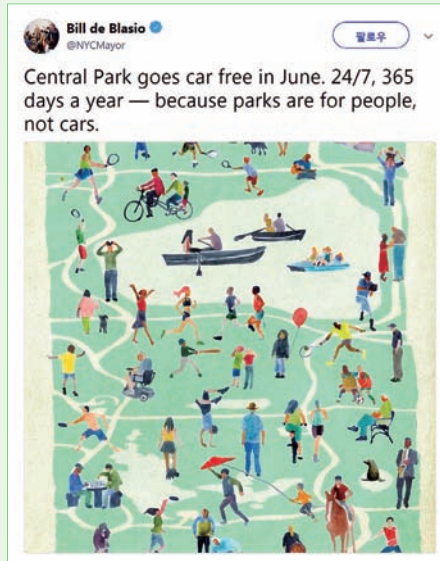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674-17/mayor-de-blasio-all-prospect-park-will-become-permanently-car-free#/0>

6월 27일부터 뉴욕 센트럴파크(Central Park)가 차량 진입 전면 금지 구역(Car-Free Area)으로 지정된다.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센트럴파크가 고속도로화되는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여 총 800에이커에 이르는 기존의 공원 도로 전부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하였다.

시 당국은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파크(Prospect Park)에서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2017년 10월 차량 전면 금지 방안을 공원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센트럴파크의 차량 진입 전면 금지 시행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첼 실버(Mitchell Silver) 뉴욕시 공원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국장은 “센트럴파크의 차량 전면 금지는 도시공원이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는지 전 세계 국가에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뉴욕 센트럴파크
차량진입 전면 금지 선언
트윗 내용

자료: https://twitter.com/NYCMayor/status/987307724210917376/photo/1?ref_src=twsrc%5Etfw&ref_url=https%3A%2F%2Fwww.mnn.com%2Fgreen-tech%2Ftransportation%2Fblogs%2Fcentral-park-going-car-free-summer (검색일자 : 2018.6.4.)